

만남

2021년 11월
통권 202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그 날과 그 시간-----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슬기로운 신앙	-----	14
50주년 기념글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이 달의 전례	-----	18
50주년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어릴 때, ‘개미와 베짖이’라는 이솝우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개미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식량을 먹을 수 있었고, 무사히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짖이는 여름 내내 신나게 놀았습니다. 주위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놀아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왔고, 이제 주위에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짖이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었고, 아마도 노숙자 베짖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준엽 시인의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개미와 베짖이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 보겠지요./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 보겠지요./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겠지요./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 보겠지요./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가족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보겠지요./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 보겠지요./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나는 내 마음 밖에서/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 보겠지요.”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상처 주지 않고, 부끄럼 없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개미와 베짖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개미도 있고, 베짖이도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개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베짖이의 삶일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개미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숲을 만드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숲, 신앙공동체는 바로 그런 숲입니다. 50년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의 숲은 만들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간(마르 13,24-32)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장 “주께선 나의 피난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 ❖ 주님! 저희가 시대의 표징을 제대로 깨달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0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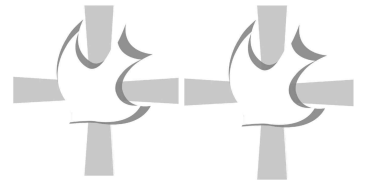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종말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며 오늘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는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기보다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마르코 복음 13장에서 묘사하는 박해, 천재지변, 전쟁은 꼭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선과 악, 사랑과 횡포, 그리스도와 악마의 싸움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날 것인가?”란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승리는 선, 진리, 사랑,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26절) 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박해를 받더라도 선을, 사랑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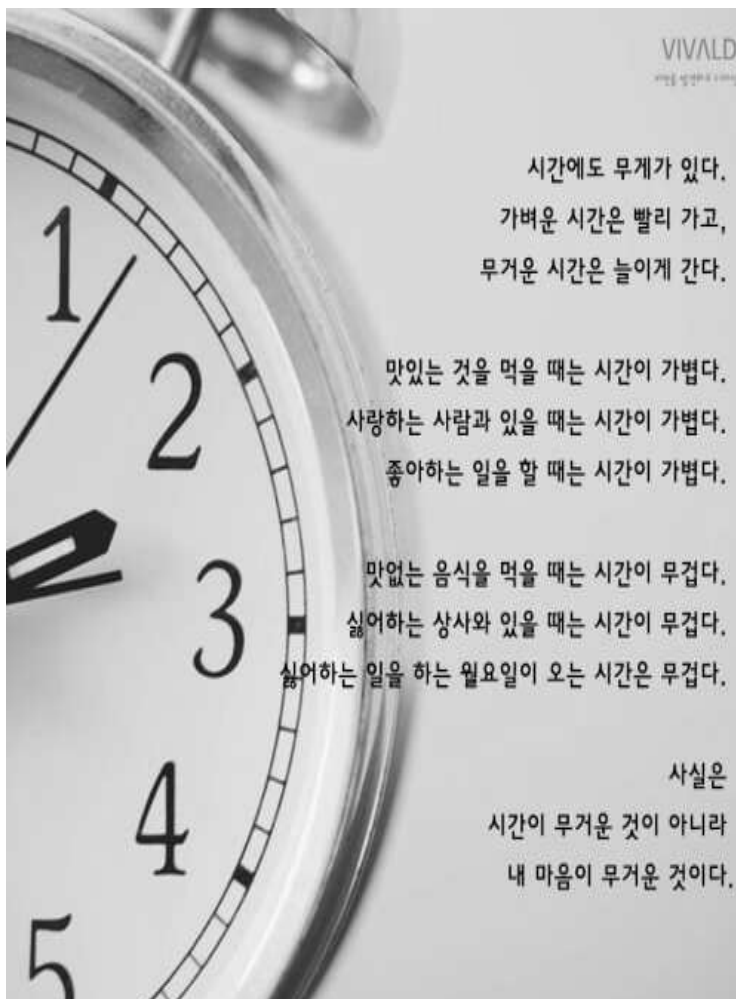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장 “주께선 나의 피난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떠를 때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루카 17:5



문명 배네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25. 생태적 회개

사회교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먼저 상황과 원인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을 내리고,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 장벽을 뛰어넘는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에 이번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감염병을 발생시키듯 말입니다. 결국에 중간 접촉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이동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바이러스가 다른 종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넘어오더라도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전염병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인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도시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기에, 산림을 훼손했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생태계는 더욱 교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꾸준히 야생동물의 자리를 침범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입니다.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침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생태계 위에 군림하고 남용했던 결과를 되돌려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인류에게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런 비극이 앞으로도 반복되리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침해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해결도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태적 회개가 인류에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217항)

26. 복음화와 교리교육

“인간의 모든 차원이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이러한 ‘복음화’에 대한 정의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화’는 ‘변화’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변화’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선포된 복음이 한 사람과 만나,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성장의 차원’(양성)과 복음화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변화’와 ‘성장’의 차원은 선포된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인격’을 따르겠다는 ‘변화’의 결심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생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따라가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새 교리교육 지침서, 14항 참조)

「교리교육 총지침」 5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앙은 삶의 변화, ‘내적 쇄신(metanoia)’, 곧 정신과 마음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통하여 신앙인은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내적인 삶과 행동, 교회 사명에 대한 참여, 혼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 모든 차원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드러난다.”(교리교육 총지침, 55항)

그러므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변화는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서 이어지는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회칙 「신앙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신앙의 선물을 받아들여 믿는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며 이제 ‘아드님 안에서 아들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체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인 ‘아빠!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의 핵심이 됩니다(로마 8,15 참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인간 실존의 토대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선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신앙의 빛, 19항)

27. 미신, 우상숭배, 그리고 불경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주님으로서 그분을 존경하고 온전히 순명하며 살아갑니다(이를 흠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욕망으로 인하여 미신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불경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먼저, 미신(迷信)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점(占)과 마술이나 요술 행위가 해당합니다.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혹은 액(厄)을 쫓기 위해서 부적을 지닌다거나, 점 봐주는 사람을 찾아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물어보거나, 탄생 별자리와 타로점, 손금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해석하는 일들 모두 미신행위입니다. 이런 행위 뒤에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시간과 역사, 나아가 운명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하느님께 모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잡신이나 마귀, 악마를 숭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쾌락, 인종,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것 모두가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느님께서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경은 하느님을 시험하거나 하느님의 능력을 두고 어떤 효과를 바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거나 병에 걸렸는데도 치료받길 거부하고 오로지 기도로만 낫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을 함부로 보고, 하느님께 함부로 하는 신성 모독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사나 전례,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물건 또는 장소를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는 아주 심각한 불경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며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모독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톨릭교회 신자 모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

질문

종교인들의 사기행각이 보도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신앙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보도를 접하면 두렵기도 하고 괜히 종교를 선택했나는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속칭 ‘종교 사기꾼’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처럼 종교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종교만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기 치기 쉬운 곳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일단 의심을 품지만, 종교인들은 ‘신부인데’ ‘목사인데’ ‘스님인데’ 하면 일단 신뢰심을 갖고 호감을 느끼기에 사기꾼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종교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기꾼 식별이 쉬운 편이지만, 영악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수법이 능란해서 쉽사리 식별하기 어렵고 설령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방어기제 중에서 ‘반동형성’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반동형성이란 자신의 욕구와 정반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표현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정반대의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정의를 부르짖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의 실현과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경우 대부분 그 마음이 부정직하거나 혹은 가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의와 복지 운운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금품 혹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비난을 못 합니다. 외부에서 정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미지화됐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부류는 영적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당신에게서 기운이 느껴진다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흥종교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비단 신흥종교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는 등의 말로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은근히 금품 헌납을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신자분들은 험사리 의심하고 거부하기 힘듭니다. 행여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걱정돼 불안한 마음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건드리고 조종하는 영악한 짓을 합니다. ‘지금 가정의 우환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거나 ‘죽은 이의 영혼들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무속인들이나 하는 험박성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신경증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 운운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영적인 세상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을 하느님께 노여움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 자신 안의 작은 의심을 접고 조건 없고 복종적이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종교적 사기행각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복음 묵상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사기꾼들의 행적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김승현 프란치스코 신부님)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공생황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하느님 나라의 개념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봉독하시며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1-2; 루카 4,18-19)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이 말씀 안에 하느님 나라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황은 이 하느님 나라의 개념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셨으며, 병자들을 치유해주셨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으며,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공통점은 인간 고통의 해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가 확립되는 과정은 인간 고통이 해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을 향해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투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황 중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인들의 투신이 결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오히려 구체적 현실 안에서 일어나야 함을 증거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루카 4,43 참조). 이는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그만큼, 사회생활은 보편적인 형제애, 정의, 평화, 존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선포와 삶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교황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180항)

사랑의 이중 계명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믿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마태 22,37-39)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

사랑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삼위 일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11)

이웃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를 통해 ‘이웃’의 범위를 생면부지의 사람으로까지 확장하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더라도 그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웃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교리는 이 이웃 사랑을 사회적이고 구조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이웃의 실재적이고 절박한 필요에 응하는 것이다.”(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208항)

생각해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느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은 올바른 열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느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사회교리는 세상 안에서 이 두 사랑을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자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언제나 이웃사랑을 거쳐 올라가는 하느님께 바치는 참된 예배를 망각합니다.”(교황 프란치스코, 2019년 10월 27일 아마존 시노드 폐막미사 강론)

★ 항상 쇄신하는 교회(전삼용 요셉 신부님)

쇄신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솔개가 40년을 더 살게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개가 40년을 살아 나이가 들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무뎌지며 깃이 무거워져 잘 날 수 없게 되고 먹이도 재빠르게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홀로 산 위로 올라가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서뜨리면 새 날카로운 부리가 다시 자라나는데 그 부리로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아내면 강한 발톱과 가벼운 깃털을 가지게 돼 40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솔개는 일 년 정도 더 살다가 죽고 만다고 합니다.

‘항상 쇄신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쇄신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가만히 놓아두면 죄로 기울게 돼, 끊임없는 쇄신과 변화가 없이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기는 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완전’한 인간이기는 할지라도, ‘완성’된 인간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 완성해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됐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는 어느새 성장을 멈추고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체장을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자신이라도 하지 않으면 단체가 사라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런 모습은 차라리 그런 단체가 사라지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몸에서는 피가 그렇고 사회에서는 돈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전의 세포는 죽어야 하듯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순교하신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피 흘림이 쇄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변화를 두려워해 근 2000년이나 라틴어로만 미사를 고집해 왔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산다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성장을 위한 거름입니다. 내가 살자고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주님을 만난 “만남의 집”

먼저 50년이란 세월 동안 저희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를/늘 사랑하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하느님 아버지와 성모 어머님과 저희 본당 주보성인이신/예수성심께서는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길이 받으소서!

그 동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고 동글지 않았던/함부르크 한인성당을 주일미사 성제로 똑바로 세우시고/진리의 복음말씀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의/가르침으로 저희들 마음속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신/함부르크 대교구,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마산교구장님과/역대 모든 사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사랑과 배려로 사목하심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알게/모르게 함께 하신 교형 자매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50년 전 사랑하던 부모형제와 친구와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먼 독일 함부르크에 온지도 벌써 반세기가 흘러가고 있지만/푸른 꿈을 가득안고 눈물로 지새우며 날아온 서독 함부르크/처음엔 손짓발짓과 오직 독일어 단어 하나로 말이 통하였고/늘 웃는 모습으로 정성껏 성실하게 환자들을 간호하였기에/친자식처럼 귀여움과 사랑을 가득 받았던 한국의 천사였다.

주일이면 외로운 인생의 나그네로 “만남의 집”에 모여 앉아/외롭고 그리운 향수를 서로서로 달래주던 위로의 보금자리/용기종기 모여앉아 하느님 이야기꽃을 피우던 에덴의 동산/낮이든 밤이든 너무 좋아 떠날 줄을 모르던 만남의 광장/손에는 가진 것도 전혀 없었고 나눌 것도 하나 없었지마는/주님과 함께 하는 뜨거운 가슴과 이웃 섬기는 열정으로/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웃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었고/수줍은 얼굴로 두 손 내밀며 주님의 평화를 서로 빌었네!

아~아~ 길고도 긴 세월로 강산이 5번이나 바뀐 반세기라/긴 세월의 강물 따라 믿음과 신앙의 물결도 희로애락의/암석에 부딪혀 용솟음쳤다가 또다시 말없이 부서졌지만,/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늘 함께 모여/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평화인사를 나누면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던 우리들의 모습이/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고 성실하게 보였으면/끊임없는 자비와 평화와 축복을 은총으로 내려 주셨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만남의 집”에서 만난 우리들의 인연이/50년 역사의 선물로 예수님사랑의 꽃을 가슴마다 달았고/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의 만남과 슬픈 이별의 순간들도/항상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곱게 새겨져 있는데/언젠가 주님 품에서 우린 만나게 되고 또 함께 하리라!

50년 전에 “만남의 집”이 지금 우리 만남성당이 되었고/흘러간 세월의 굵이굵이마다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과/아름답게 고이 접어둔 추억들 속에 떠오르는 모습들이/오늘따라 많이 그립고 너무 보고파서 말없이 불러본다.

만남의 집에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만나던 우리 사이가/반세기의 사랑 나눔으로 다정한 친형제자매가 되었고/시립공원에서 배구공 하나로 함께 뒹굴었던 교민들이/반세기의 친교 나눔으로 대한의 아들딸들이 되었으며/본당의 날에 함부르크와 브레멘, 하노버, 오스나브뤼크,/오슬로 지방 공동체와 함께 성령님 모시던 교우들이/반세기의 평화인사로 축복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애 처음으로/부활절과 성탄절 대축일을 집에서 TV 중계로 미사를/드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었고/죄인처럼 서로 숨어 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며/예방접종을 했어도 가는 곳마다 불편한 것은 같으니/언제 또 다함께 모여 마음껏 찬미찬송노래 부르리까?

50주년 본당 창립 기념행사도 제 날짜에 할 수가 없어서/11월 21일에 미사만 봉헌하게 되어 참 서글퍼집니다./하느님, 저희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로 강복해 주시고/성모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2021년 9월 21일 최영숙(데레사)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김권최	점우효	선애진	17일	엘리사벳	허박김	영가	란람
5일	엘리사벳	송오한 (이	옥세경 사	자숙자 미벨)	22일	체칠리아	김이이 신김	애영석 지효	란희혜 숙
10일	레오	최김허 추	장현주 연	용일진 구	30일	안드레아	김권	영지	경연
17일	빅토리아	김구	귀자	숙옥		안드레아	김김허	삼성길	용곤조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22일	체칠리아 (마리 세실)	조영실(B)
16일	젤트루다	김순자(B)	24일	플로라	유혜선(B)
17일	엘리사벳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 11월 성가번호 ❖

11월	입당	봉헌	성체	파견
7일	16	512	160	27
14일	403	41	163	233
21일	73	511	156	78
28일	92	217	188	91

❖ 11월 전례 봉사 ❖

11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7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4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체칠리아)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21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8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권지연(안드레아) 이순자(마리아)	주일학교	X

❖ 본당 살림살이 ❖

♥ 10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0월 20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심동근, 영희Eggerstedt, 최순남, 최장용, 한말조,

* 계좌(10월 20일 기준)

권말숙 Rabe,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허선애, 김유석, 김원자, 김치수, 김효정, 남궁춘배, 백정선,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김순임,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이명원, 현영애, 허채열, 김영복, 김진호, 배성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0월 20일 자 통장 잔액은 30.844,49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50주년 기념미사

- 1) 기념미사는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는 평소의 주일미사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 2) 기념미사에는 김성운(마르코) 지휘자의 지휘 아래 청년들이 다양한 연주로 전례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박성아(베로니카) 자매님이 헌정한 곡도 연주될 예정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3) 공지사항 때 다음과 같이 기념식을 간단하게 거행합니다.
 - ① 50주년 준비위원장님의 기념사(허길조 안드레아)
 - ② 본당 회장님의 축사
 - ③ 50주년 역사 보고(김진호 프란치스코)
 - ④ 50주년을 위한 기도 합계 발표(꾸리아 단장님)
 - ⑤ 감사패와 축복장 수여식
- 4) 미사 후 50주년을 감사하는 의미로 준비한 기념품과 도시락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내빈소개는 없으며,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에 큰 기여를 하신 야쉬케 보좌주교님은 따로 방문을 하여 인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슈테판 대주교님과 주교좌성당 신부님, 그리고 예수 성심 성당 신부님도 준비위원장님과 회장님이 방문하여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 마산교구 이주민 복지를 위한 기부금(오천 유로)은 마산교구에서 수령하였고, 수령증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가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해왔습니다.

*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공동체의 역사에 관한 소책자를 12월 말 경까지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시와 공동체의 역사, 각 신심단체 소개 등을 담은 소책자는 연말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 2일 화요일 위령의 날,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11시에 Friedhof-Ohlsdorf Kapelle 13에서 연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미사 후 선종하신 교우들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무덤축복과 함께 연령회에서 준비한 꽃과 촛불을 봉헌합니다. 미사장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혹시 다른 묘원에서 무덤축복을 원하시면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1월에는 매년 미사 후에 연도를 공동으로 바쳤지만 올해에는 없겠습니다. 아울러 50주년 기념미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11월 21일 일요일은 Diasporasonntag으로 2차 헌금이 예정되어 있지만 저희는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는 관계로 2차 헌금은 11월 28일 대림 제1주일 미사 때로 변경합니다. Diaspora라는 말은 유배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소수 민족으로 살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독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Diasporasonntag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11월 27일 토요일에는 대림바자회가 예수 성심 성당과 옆의 개신교 교회에서 열립니다. 매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행사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축소되어 개최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11월에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행사가 있지만 지방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방공동체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미사 후 나눔은 없겠습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Q.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1월(위령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모든 성인 대축일		
2	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위령의 날 미사, 11시	Ohlsdorf Friedhof
3	수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4	목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5	금			
6	토			브레멘 공동체
7	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8	월			
9	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10	수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11	목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농업인의 날
12	금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13	토			오스나브뤼크
14	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15	월			
16	화			
17	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18	목			
19	금			
20	토			하노버 공동체
21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본당 50주년 기념미사 예수 성심 성당 15시	성서 주간 시작
22	월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소설		
23	화			
24	수	성 안드레아 동료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25	목			
26	금			
27	토		대림 바자회	
28	일	대림 제1주일	Diasporasonntag 2차 헌금	
29	월			
30	화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